

Then Jesus said to his disciples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he must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Matthew 16:24)

2012. **1**

Manna of Choonghyun

충현의 만나

가정예배

사무엘상 · 사무엘하 · 디모데전서 · 디모데후서

구역예배 · 대학청년부 GBS

대한예수교 충현교회
장 코 최

Then Jesus said to his disciples,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he must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Matthew 16:24)

십자가

Contents

- 8 1과 첫 번째 성찬식
- 16 매일성경묵상 사무엘 27장 ~ 사무엘하 1장
- 24 2과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 32 매일성경묵상 사무엘하 2장 ~ 사무엘하 7장
- 40 3과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꾸라
- 48 매일성경묵상 사무엘하 8장 ~ 사무엘하 11장
- 디모데전서 1장 ~ 디모데전서 2장
- 56 4과 구원하는 믿음
- 64 매일성경묵상 디모데전서 3장 ~ 디모데후서 2장
- 72 5과 너무 늦었다
- 80 매일성경묵상 디모데후서 3장 ~ 디모데후서 4장

『중현의 만나』는

가정에배 · 구역에배 · 대학청년부 GBS를 돕기 위해 중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교재입니다

1 January 2012

주 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1	2 사무엘상 27장	3 사무엘상 28장	4 사무엘상 29장
8	9 사무엘하 2장	10 사무엘하 3장	11 사무엘하 4장
15	16 사무엘하 8장	17 사무엘하 9장	18 사무엘하 10장
22	23 디모데전서 3장	24 디모데전서 4장	25 디모데전서 5장
29	30 디모데후서 3장	31 디모데후서 4장	

February

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5 사무엘상 30장

6 사무엘상 31장

7 사무엘하 1장

12 사무엘하 5장

13 사무엘하 6장

14 사무엘하 7장

19 사무엘하 11장

20 디모데전서 1장

21 디모데전서 2장

26 디모데전서 6장

27 디모데후서 1장

28 디모데후서 2장

교외 주요일정

1월 1일

산년감사예배
제1차 성찬식

1월 29일

선교주일

나의 주요일정

기·도·제·목

- 1 충현교회가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든든히 세워지고,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 2 김성관 위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정결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소서.
- 3 충현교회에 주신 5대 목표가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짊어지기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 4 십자가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 5 모든 교구와 부서, 각 위원회가 십자가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복음으로 부흥하게 하소서.
- 6 1년 1인 1명 전도하며, 교회 주변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게 하소서.
- 7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 8 충현교회의 재단들(유지, 동산, 복지)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현재 진행 중인 양로원 및 함양충현농원 개발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소서.

2012년에도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 외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십자가를 붙들 때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놀라운지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인간과 맺어주신 영원한 언약의 증표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안에는 세상의 것들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십자가만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십자가를 놓아 버리는 순간,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뿐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요 6:35).

2012년 1월을 맞이하며 위임목사 김성관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15)

매일성경묵상

가정예배 · 구역예배 · 대학청년부 GBS

HOLY

첫 번째 성찬식

마가복음 14:22~26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예레미야 32:36~42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꾸라

시편 56:10~13

구원하는 믿음

야고보서 2:14~26

너무 늦었다

요한계시록 22:10~13

매일 성경 매일 예수

읽으신 후 ☐에 체크하세요

1주일

2월요일

☐ 사무엘상 27장

3화요일

☐ 사무엘상 28장

4수요일

☐ 사무엘상 29장

5목요일

☐ 사무엘상 30장

6금요일

☐ 사무엘상 31장

7토요일

☐ 사무엘하 1장

첫 번째 성찬식

The First Communion

| 초점 |

십자가는 구원의 은총을 기념한다

| 찬송 |

찬송가 232장 유월절 때가 이르러

찬송가 198장 주 예수 해변서

| 본문 | 마가복음 14:22~26

- ²²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 ²³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 ²⁴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 ²⁵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 ²⁶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 산으로 가니라

첫 번째 성찬식은 2000년 전쯤에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이 함께 있었던 다락방에서 시행되었습니다. 성찬식은 초대교회 시대를 거쳐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매년 7차례 시행되는 우리 교회의 성찬식 중에 2012년 새해 첫 날이며 동시에 첫 주일인 오늘은,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이 놀라운 특권을 기념하기에 알맞은 때라고 생각합니다. 성찬 예식이 지닌 상징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떡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며, 잔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타냅니다.

요 6:35 _____

막 14:24 _____

그렇다면 2012년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것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거저 받은 구원의 선물

우리는 거저 받은 구원의 선물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고전 15:3~4

성찬식의 메시지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죄인들에게 값없는 구원을 제시합니다. 복음은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음을 선언합니다.

요 3:16,36

하나님의 은총은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얻을 수 없으며, 인간이 값없이 만들 수도 없습니다(엡 2:8~9). 선행을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찬식 또한 구원을 기념하는 시간일 뿐, 그 자체가 구원을 주지는 못합니다. 성찬식은 우리를 십자가로 돌이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찬식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딤후 1:9

막 14:22

완전한 죄 사함

우리는 완전한 죄 사함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성찬식은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히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막 14:23~24

요일 1:9

첫 성찬식 때 예수님과 함께 했던 11명의 제자들은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그들은 모두 도망쳤습니다. 예수님을 3년 넘게 섬긴 그들도 모두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 가득하던 사람들이 용서받았습니다. 11명의 제자 모두가 역동적인 초대교회의 핵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두려움 가득하던 이 사람들이 완전히 용서받은 것입니다.

※ 제자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cf. 막 14:50 ; 눅 22:34 ; 요 20:25,28)

※ 예수님을 믿은 후, 변화된 나의 삶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환상적인 미래

영사 존 영스턴

우리는 환상적인 미래를 축하하고 있습니다.

막 14:25 /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_____
_____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 14:3 / 가서 너희를 위하여 ☐☐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
☐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천국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위대한 왕국에서 예수
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손꼽아 기다릴만한 놀라운 미래가 아닙니까? 천국
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미래입니다.

※ 천국에서의 삶이 어떨지 자유롭게 나누어 보십시오.

벧후 3:12~13 _____

계 19:9 _____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초대받으셨습니까? 값없는 구원, 완전한 죄 사함, 그리고 환상적인 미래를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죽으심을 선언함으로 2012년 첫 날을 축하합니다. 이 성찬의 중심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은총을 기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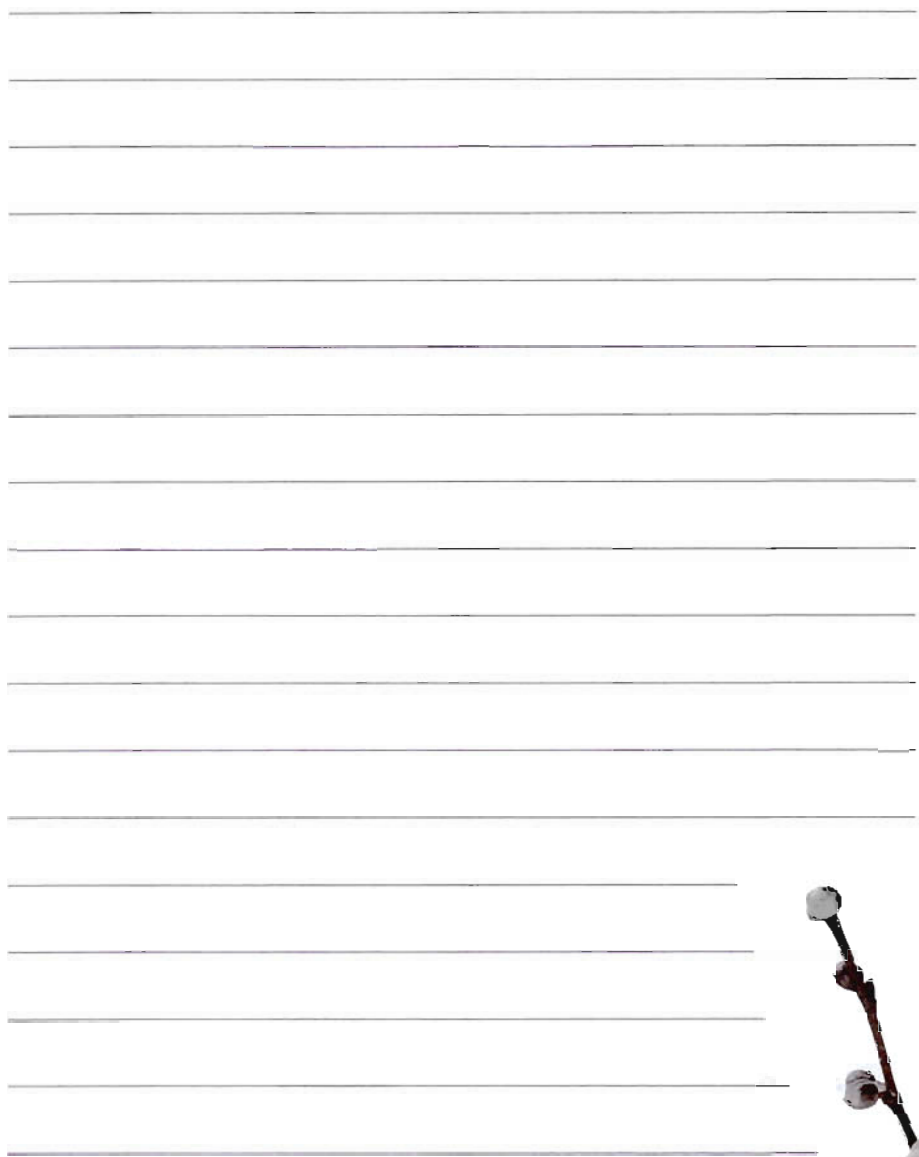
고전 11:26 /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_____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요 6:35 _____

| 믿음의 기도 |

- ① 십자가가 구원의 은총임을 기념하게 하소서.
- ② 2012년 제1차 성찬식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들게 하소서.
- ③ 총현의 모든 성도가 복음으로 깨어져 십자가를 전하게 하소서.





내가 후일에는

사무엘상 27장

찬송가 370장

목/창/노/트

다윗은 자신이 결국 사울의 손에 망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절망과 좌절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면 사울의 손에서 다윗을 구원하셨지만, 다윗은 믿음이 한계에 도달한 듯 블레셋으로 도피하였습니다(1~3절). 다윗은 자신이 독립적으로 거처할 수 있는 성읍을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목적이 사울의 추적을 피하는 것이었지, 블레셋과 연합하거나 그들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5~6절). 다윗은 이스라엘을 약탈하는 유목민들을 공격하여 철저하게 멸하였습니다. 사울을 따라 자신을 추적하는 이스라엘을 미워하여, 그들을 공격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오히려 이스라엘을 보호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결코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8~12절).

만약 다윗이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임을 생각했다면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미래를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생각하기보다는 지금의 어려운 처지와 형편에서 미래를 바라본 것입니다. 그는 블레셋으로 가는 것이 상책이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스도인이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한 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십자가를 놓치면 자기 본성이 드러납니다.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날마다 새 피조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니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삼상 27:1)

But David thought to himself, "One of these days I will be destroyed by the hand of Saul. The best thing I can do is to escape to the land of the Philistines. Then Saul will give up searching for me anywhere in Israel, and I will slip out of his hand." (1 Sam. 27:1)

• **사물려(6절)**: 시므온 지파에 분배된 성읍이며(수 19:5 : 대상 4:30), 후에 블레셋에 탈취당했다.

기도제목

① 날마다 회개하며 믿음의 길을 걸게 하셔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소서. ② 총현교회가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든든히 세워지고,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그리스도인의 타협

아기스 왕은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군대를 소집하였으며, 다윗에게도 전쟁에 참여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1~2절). 사울은 블레셋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여 전쟁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5~6절). 사울은 하나님을 등지고 신접한 여인을 은밀하게 찾아갔습니다. 사울은 심각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7~14절). 정당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 실패한 사울은 이제 불의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합니다(15~19절). 사울은 자신의 집안과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손에 넘겨지게 되리라는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아 땅에 쓰러집니다. 그는 하나님께 회개하기보다는 극한의 공포에만 사로잡혀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20~25절).

다윗은 아기스를 속여 그로 하여금 자기를 이스라엘에 대해 미련을 버린 아기스의 사람이 된 것으로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러한 계략은 오히려 큰 고민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때로는 아무리 사소하게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세상과 타협하는 것은 결국 사탄의 속임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말쑥에서 벗어나도록 만들기 위해 우는 사자와 같이 항상 문 앞에서 도사리며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타협은 타협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자에게 크나큰 신앙의 갈등을 안겨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삶을 위해 부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일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삼상 28:1)
In those days the Philistines gathered their forces to fight against Israel.
Achish said to David, "You must understand that you and your men will accompany me in the army." (1 Sam. 28:1)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
(2절): 종신 호위대장. 다윗은 이런 지위에 있다가 블레셋 방백들이 왕의 결정을 반대하므로, 사굴락으로 돌아간다.

기도제목

① 나의 유익을 위해 타협하거나 계략을 세우는 자가 아닌,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르는 신자가 되게 하소서. ② 김성관 위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정결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소서.

기도노트

4

믿음의 원천

사무엘상 29장

찬송가 391장

목/상/노/트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적으로 참전해야 할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왕 아기스는 다윗과 여러 날을 함께 했으나 그의 허물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전쟁에 함께 가기를 원했습니다(1~3절). 그러나 블레셋 방백들은 다윗의 배신을 두려워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5절) 했던 다윗의 용맹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결국 방백들의 반대 때문에 다윗은 이스라엘과 원수가 될 위기에서 건짐을 받게 되었습니다(6~11절).

다윗은 이스라엘과 싸워야 하는 위기와 갈등 속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이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닫지 못합니다. 돌아가라는 아기스의 말에 대해 아기스에 대한 절대적 충성을 보이는 척 행하는 다윗에게서 예전에 골리앗을 무너뜨린 믿음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울에게서 도망쳐 다니면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모습 또한 보이지 않습니다. 다윗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이 인간의 각오나 다짐이 아니고 인간이 생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인간의 소유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오직 불신앙의 속성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 인간을 믿음으로 행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신자 안에 내주하셔서 믿음의 삶으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이 우리를 있게 합니다. 자신의 신앙을 무엇으로 지키고 있습니까? 내 노력입니까? 믿음입니까? 주님 앞에 자신을 포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매일의 삶 속에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 **아백(1절)** : 음바 북동쪽 사른 평야에 있는 가나안 사람의 왕이었으나 여호수아에게 정복되었다. 후에 엘리 시대 말엽 이스라엘 사람은 이곳에 진을 쳤던 블레셋 사람에 의해 두 차례 격퇴 당한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삼상 29:8)

"But what have I done?" asked David. "What have you found against your servant from the day I came to you until now? Why can't I go and fight against the enemies of my lord the king?" (1 Sam. 29:8)

기도제목

① 오직 불신앙만 가득한 나에게 주님의 열심을 부어주셔서 십자가만 바라볼 수 있게 하소서. ② **총천교회에** 주신 5대 목표가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삶으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기도노트

다윗을 돌로 치자

5

다윗은 아벡에서의 난치한 일은 잘 넘겼지만, 시글락에서 더 큰 괴로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시글락을 침노하여 사람들을 사로잡아 갔고, 그 속에는 다윗의 두 아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1~5절). 백성들은 쓰라린 슬픔의 상황을 다윗의 책임으로 돌렸으며, 다윗을 추악한 범죄자로 여겨 처형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었습니다(8절).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큰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아무 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든 사람을 되찾았을 뿐 아니라, 아말렉의 재산까지도 전리품으로 얻었습니다(18~20절). 악한 자와 불량배들은 보상의 원리에 따라 전리품을 나누기를 제안했지만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에 서서 전리품을 나누도록 했습니다(22~31절).

모든 책임을 다윗에게 돌리고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백성들은(6절) 다윗이 다시 블레셋을 물리치고 모든 탈취물을 빼앗아 오자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며 다윗을 찬양합니다(20절). 성경은 백성들이 느낌과 분위기, 상황에 따라서 행동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좋으면 웃고 나쁘면 분노하는 극히 인간적인 모습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문제는 다윗을 비난하고 돌로 치려고 했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상황이나 분위기가 아닌, 십자가만 바라보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30장

찬송가 286장

룩/창/노/트

백성들이 자녀를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삼상 30:6)

David was greatly distressed because the men were talking of stoning him; each one was bitter in spirit because of his sons and daughters. But David found strength in the LORD his God. (1 Sam. 30:6)

• 그렛 사람(14절) : 이들은 블레셋 사람과 함께 다윗의 용병대로 활약했다(삼하 15:18). 이 명칭은 그들이 원래 그레데 섬에서 왔다는 것을 가리킬 수도 있다.

기도제목

①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주어진 상황에서 언제나 십자가를 볼 수 있게 하소서. ② 십자가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기도노트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

사무엘상 31장
찬송가 525장

묵/상/노/트

사울이 자결한 원인은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함”이었습니다(4절). 그가 피하고자 했던 수치와 모욕은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영적 수치에는 찔림이 없었지만, 블레셋 사람들에게 받는 수치에는 예민했습니다(1~4절). 하나님은 결국 사울을 심판하셨습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항한다면 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전쟁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있고, 능력 있는 나라를 위해서 간구했을 때 세워진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는 보잘것없는 베나민 지파 사람이었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세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지만 사울은 전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겸손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겸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면서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에 관심을 두던 자였습니다. 그런 그에게는 회개가 없었습니다.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자기의 의를 지키기 위해 그는 목숨을 끊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성도의 삶 자체는 주님께서 피흘려 사신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삶을 포기할 괴로움이 닥칠지라도 십자가를 붙들며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영적 수치는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에게 철저한 회개가 있기를 원합니다.

• 길르앗 아베스(11절) : 므낫세 지파에 속한 요단 동편에 있는 성읍.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 날에 함께 죽었다(삼상 31:6)
So Saul and his three sons and his armor-bearer and all his men died together that same day. (1 Sam. 31:6)

기도제목

① 세상과 사람에게 받는 수치를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수치에 민감한 자가 되게 하소서. ② 예루살렘 찬양대와 오케스트라(눅 2:36)를 통하여 금요찬양집회가 십자가의 은총으로 풍성하게 하소서.

기도노트

거짓말하지 말라



사무엘하는 '사울이 죽은 후' 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이는 사울의 시대가 지나가고 다윗 통치의 새 시대가 왔다는 선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끈질기게 노리던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기뻐하기 보다는 심히 슬피하며, 금식하였습니다. 다윗은 한 번도 사울을 원수로 여긴 적이 없었습니다(1~12절). 다윗은 사울을 죽었다고 자랑스럽게 말하며, 보상을 기대했던 아말렉 청년을 죽이고 요나단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릅니다(13~19절). 애가에서 다윗은 사울을 용사요, 이스라엘의 영웅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윗이 요나단의 죽음을 애통했던 이유는 자신에게 보여준 그의 깊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20~26절).

아말렉 청년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로 다윗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다윗의 속적을 죽인 것에 대한 보상을 바랐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대목에서 '거짓말하지 말라' 는 교훈이 담겨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직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는 도덕적 가르침을 말하기 위해 성경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생각할 것은 아말렉 청년의 거짓말이 아니라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그 속사람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가진 그 패역함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회개하며 주님의 은총을 구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회개할 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옛사람의 본성이 남아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을 따라야 합니다. 오직 이 길만이 생명의 길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치매 곧 죽으니라(삼하 1:15)

Then David called one of his men and said, "Go, strike him down!" So he struck him down, and he died. (2 Sam. 1:15)

• **야살의 책(18절)** : 위대한 인물이나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쓴 시들을 모은 이스라엘 고대의 시집 오늘날에는 전해지지 않으나 그 일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수 10:13).

기도제목

① 내 안에 있는 인간의 패역함을 보며 날마다 회개함으로 주님의 은총을 누리게 하소서. ②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참된 예배의 시작은 회개

희망찬

2012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에도 우리는 5대 목표를 중심으로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강력하게 뿜어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복음 중심의 삶은 신령한 예배가 기초입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는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십시오.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사 1:11~13)는 주님의 탄식이 들리지는 않습니까?

참된 예배는 예배를 통해서 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닌, 나의 목적을 버림으로 성삼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과 진리’(요 4:24)로 충만한 참된 예배의 시작은 회개(행 2:38)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의 예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딤후 1:15). 삶에서부터 예배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주일과 주간에 계속되는 공예배에 빠지지 말고 나와 2012년에도 자신이 산제물 되는 영적 예배자(롬 12:1)가 되어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히 13:15).

매일 성경, 매일 예수	
읽으신 후 ☐ 에 체크하세요	
8 주일	
9 월요일	☐ 사무엘하 2장
10 화요일	☐ 사무엘하 3장
11 수요일	☐ 사무엘하 4장
12 목요일	☐ 사무엘하 5장
13 금요일	☐ 사무엘하 6장
14 토요일	☐ 사무엘하 7장

2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God's Everlasting Covenant

| 초점 |

십자가는 영원한 언약의 증표이다

| 찬송 |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찬송가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 본문 | 예레미야 32:36~42

³⁶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³⁷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이 이 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라 ³⁸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³⁹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⁴⁰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⁴¹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⁴²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예레미야는 많은 어려운 사역들을 행하며 거친 삶을 살았습니다. 배도한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40년이 넘도록 신실히 선포했던 그는 적대감과 매 맞음, 감옥에 갇히는 위험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가 맞서야 했던 반대자들은 너무나 잔인하고 혹독하여서, 예레미야는 여러 번 선지자의 사명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신실하게 계속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 예레미야 선지자가 핍박 중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레미야는 자신이 감옥에 있는 동안 유다 왕에게 이스라엘의 패망에 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 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렘 32:2).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저주의 메시지에도 그분의 영원한 언약이 있다는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선민들에게 선포했던 이 놀라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용됩니다. 이 말씀의 영원성이 우리에게 힘을 주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우리를 이끄는 것입니다.

※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확신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으로 여러분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사랑과 힘과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에게는 강력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시 19:1 _____

창 1:1 _____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게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과 이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하시기에 어려운 것은 없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분은 무엇이든 하실 수 있음을 증명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하심은 그분의 위대한 능력을 여러분에게 상기시키며,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새로운 창조를 보증합니다.

고후 5:17 _____

렘 32:36~37 _____

질문에 답하신다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으로 여러분의 질문들에 응답하십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자주 질문을 던지고는 자기 스스로 해답을 찾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생각이 아닌 성경에서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렘 32:27

하나님은 그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은 이 세상과 하늘의 것들에 대해 분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저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 순종하며, 찬양과 경배를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렘 32:38~39

※ 누가복음 1:35~38 말씀을 요약해서 정리해 보십시오.

2012년의 삶을 시작하는 이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근심하십니까? 자기 자신에게 어리석은 질문들을 던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필요한 것을 이미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요 14:1

우리를 부르신다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으로 우리를 불러 주님께 간구하도록 하십니다.

렘 33:3 _____

벧전 1:15 _____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못하실 일은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크고 위대한 일들을 약속받았습니다. 이 약속이 오늘날 우리를 구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간구하라고 요구하시며, 이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기에 한계란 없습니다.

렘 32:40~41 _____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후에 당신의 백성들을 회복하실 것임을 예레미야에게 재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모세의 언약과는 달리, 이 새 언약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위대함과 주권, 그리고 사랑을 인정하고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영원한 언약의 증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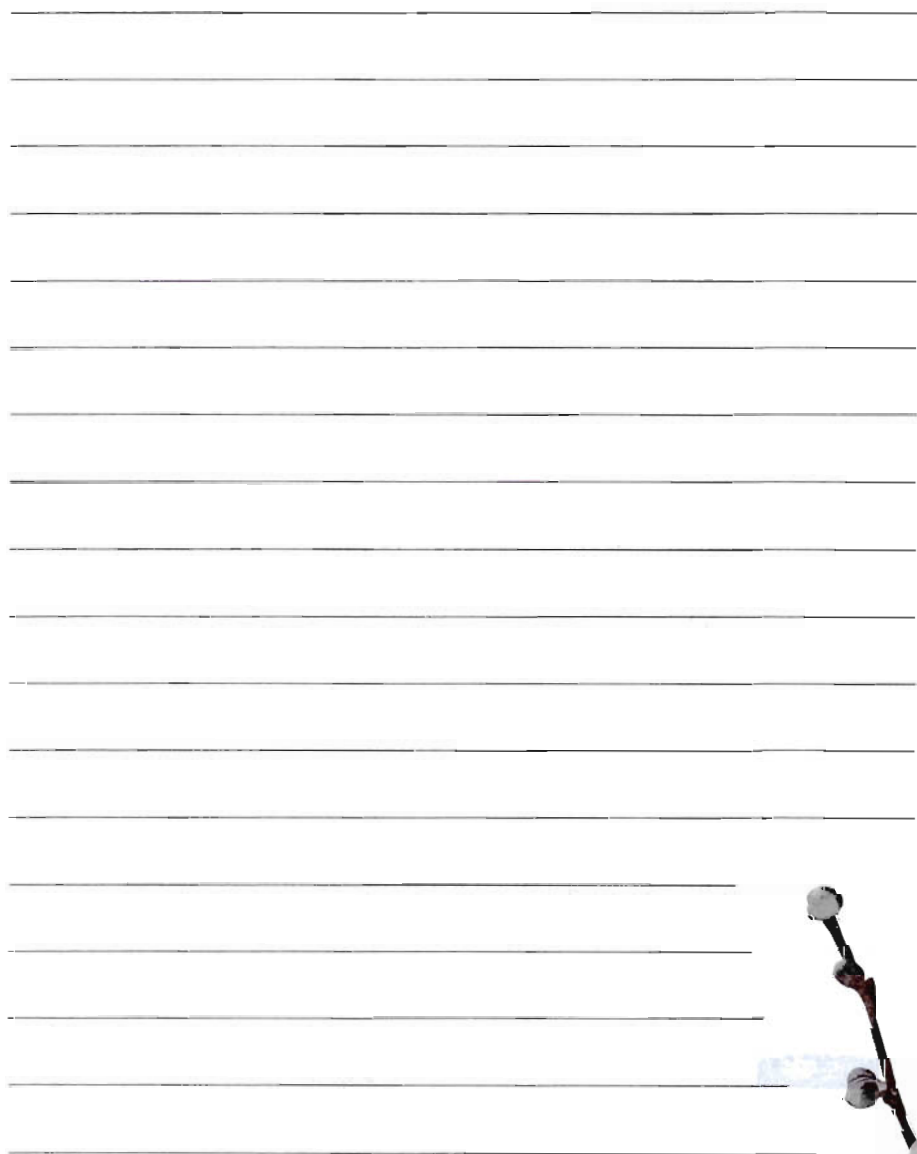
렘 32:42

벧전 3:21

| 믿음의 기도 |

- 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 ②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게 하소서.
- ③ 십자가의 복음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소서.

This image shows a single sheet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blue or grey ruling lin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here is no handwriting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



한 민족, 두 왕

사무엘하 2장
찬송가 212장

목/상/노/트

사울이 죽은 후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권을 인수하기 위해서 유다의 한 성읍으로 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해 하나님께 여쭙어 보니다(1~3절). 그리고 다윗은 사울을 장사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여호와와 복을 빌었습니다(4~7절). 사울의 군대장관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스보셋의 왕위는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 아니라, 아브넬의 정치적인 계산에 따른 것이었습니다(8~9절).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다윗은 마침내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요압의 동생 아사헬은 자신의 힘만 믿고 부모에게 아브넬을 추격하다가 결국 그에게 죽임을 당하고(18~23절), 쫓기던 아브넬은 요압에게 휴전을 제안했습니다(26~28절).

4절에 보면 유다 족속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8~9절을 보면 아브넬이란 사람이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족속의 왕으로 세웁니다. 결국 같은 민족들 안에 두 명의 왕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이 경우 필연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싸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자존심과 명예의 문제이기 때문에 무엇에서든 이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기도를 할 때도, 봉사를 할 때도 자칫 경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는 것을 자신의 힘으로 삼고, 그것으로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경쟁과 싸움이며 시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들의 행위에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단지 우리 모두가 십자가 아래 다스려져야 할 죄인임을 늘 고백하며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신자일 뿐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사십 세이며 두 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삼하 2:10)

Ish-Bosheth son of Saul was forty years old when he became king over Israel, and he reigned two years. The house of Judah, however, followed David.(2 Sam. 2:10)

• 겨루게(14절) : (히) '사하크'. 양편의 용사들이 일대일로 겨루는 대리 전쟁을 의미한다.

기도제목

① 우리의 악한 본성이 십자가 아래 다스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자존심을 모두 내려놓고 십자가로만 충만하여 주님의 일에 충성하게 하소서. ② 월요 새벽기도회에 모든 성도가 참석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십자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소서.

기도노트

그의 왕위로

10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 이스보셋임에도 '사울의 집'으로 언급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보셋의 왕권을 사울 왕권의 연장자로 보시고, 그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으셨음을 암시합니다(1절). 다윗은 이스보셋을 견제하기 위하여 그술 왕 달매의 딸 마아가와 정략적으로 결혼했습니다. 군대장관 아브넬은 사울의 첩인 리스바의 문제로 왕인 이스보셋과 대립각을 세우게 되었고(2~8절), 이로 인해 아브넬은 이스보셋의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주겠다고 맹세합니다(9~12절). 그러나 다윗의 군대장관이었던 요압은 아브넬이 정치적 욕심을 품고, 유다를 염탐하기 위해 온 스파이로 의심했습니다. 결국 요압은 다윗에게 의논도 없이 아브넬을 살해하고 맙니다(24~30절). 다윗은 정당하지 못한 피 흘림이었기에 아브넬의 죽음을 위하여 슬피 울며 애가를 짓고 금식했습니다(28~39절).

1절의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는 말씀을 보며 흔히 믿는 자는 부자가 되고 힘도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약해지는 것보다는 강해지는 것을 소원합니다. 하지만 강해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약함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강한 이든 약한 이든 그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강한 자가 되었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약한 자가 되었다고 해서 심판을 받는 것도,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예수님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십자가의 은총으로 풍성해지길 바랍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삼하 3:1)

The war between the house of Saul and the house of David lasted a long time. David grew stronger and stronger, while the house of Saul grew weaker and weaker. (2 Sam. 3:1)

사무엘하 3장
찬송가 154장

목/창/노/트

• 차교(34절) : 히브리어로 마루어 보아 '구리로 만든 쇠 고랑'이었던 것 같다.

기도제목

① 세상에서의 강함과 약함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 복음으로 충만케 하소서. ② 1년 1인 1명 전도하며, 교회 주변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게 하소서.

기도노트

잘못된 방식의 섬김

사무엘하 4장
찬송가 501장

목/상/노/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낮잠을 자는 중에 군지휘관인 바아나와 레갑의 배신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들은 이스보셋과 같은 베냐민 족속이며, 왕을 보호해야 하는 임무가 있었으나 보상을 바라고 이같은 일을 자행했습니다. 바아나와 레갑은 이스보셋의 목을 가지고 마하나임에서 95km나 떨어진 헤브론으로 밤새도록 쉬지 않고 다윗에게 달려갔습니다(1~8절). 그러나 다윗은 바아나와 레갑의 말을 듣고 기뻐하기는커녕 그들을 악인으로 처단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이익을 따져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여(9~11절), 바아나와 레갑을 죽이고 그들의 수족을 자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신을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는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했습니다(11~12절).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알지도 못한 채 다윗의 환심을 사려고 하다가 오히려 죽임을 당하는 레갑과 바아나라는 두 형제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원수를 갚으시기 위하여 자신들로 하여금 이스보셋을 죽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인들 또한 이와 같은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자신은 열심으로 충성하였어도 주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는 방식으로 섬긴 섬김은 헛된 일일 뿐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믿음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입니다.

• 갓다임(3절) : '두 개의 가드' 곧 '한 쌍의 포도즙틀'이란 뜻. 느 11:33에 의하면 베냐민 지파에 속한 땅이다.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애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삼하 4:11)

How much more--when wicked men have killed an innocent man in his own house and on his own bed--should I not now demand his blood from your hand and rid the earth of you!"(2 Sam. 4:11)

기도제목

① 나의 교만과 고집을 버리고 오직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겸손하게 믿는 신자가 되게 하소서. ②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은 3가지 이유를 들어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다윗과 한 혈통이며, 둘째는 다윗이 이스라엘 군대를 실제로 통솔하였으며, 셋째는 여호와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지 약 23년이 지난 뒤 마침내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1~5절).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블레셋은 가장 먼저 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다윗에게 패배하고 맙니다.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셨기 때문입니다(13~25절).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는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라 고백하며 다윗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패를 위해서 일한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을 자신의 수중에 넣기 위한 욕망으로 어떤 계책을 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가만히 있었지만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죽게 되고, 결국 온 이스라엘의 지파가 다윗에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자신이 무엇인가 된다는 것에 대해 마음을 두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내가 왕이 된다’는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하면서도 아주 어려운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된다’는 것에 대한 관심에서 벗어나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신자로서 당연한 삶입니다. 믿음은 열심히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이루실 것을 믿으며 사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삼하 5:1)

All the tribes of Israel came to David at Hebron and said, “We are your own flesh and blood.” (2 Sam. 5:1)

사무엘하 5장
찬송가 304장

목/창/노/트

• **개별(25절)** : 블레셋 왕의 경계 지역 다윗은 블레셋을 이스라엘의 경계 내에서 완전히 축출했다.

기도제목

① 내가 무엇인가 된다’는 것에 대한 관심에서 벗어나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② **총현교회의 재단들**(유지, 동산, 복지)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현재 진행 중인 양로원 및 협양총현농원 개발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13

사무엘하 6장
찬송가 398장

목/상/노/트

여호와와 그의 궤를 메어오니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법궤를 운반할 때 율법을 범하는 두 가지 실수를 했습니다. 첫째는 법궤를 수레에 실어 온 것이고(3절), 둘째는 법궤가 수레에서 흔들려 떨어지지 않도록 옷사가 만진 것입니다(6절). 이 일로 인해 옷사는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다윗은 갑작스러운 사건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에 법궤는 예루살렘으로 오지 못하고 오벧에돔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법궤를 모신 오벧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다시 여호와와 그의 궤를 다윗 성으로 옮깁니다. 다윗은 법궤를 옮기는 일에 감격하여 춤을 추었습니다(12~15절). 그런데 아내 미갈은 다윗이 춤추는 것을 업신여기며 왕의 체통을 버린 행위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궤를 다윗 성으로 가져오는 것은 단순히 거룩한 물품을 집에 모셔 놓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법궤를 모셔옴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것으로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복을 위해 법궤를 모셔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궤를 모셔오는 이유였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함이고, 순종하기 위함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 다윗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 바알레유대(2절) : '기럃여아림'(수 15:60 ; 삼상 7:1)의 옛 이름, 예루살렘 서쪽으로 13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유다의 성읍이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와 그의 궤를 메어오니라(삼하 6:15)
while he and the entire house of Israel brought up the ark of the LORD with shouts and the sound of trumpets.(2 Sam. 6:15)

기도제목

①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 다윗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소서. ② 총현교회가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든든히 세워지고,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그리스도의 나라

14

다윗은 모든 원수를 무찌르고 궁에서 평안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자신의 처소와 하나님의 처소를 비교하면서 성전 건축을 계획하지만, 하나님은 이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성전 건축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12절)는 말씀으로 대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다윗에게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전되고 네 왕위가 견고하리라”(16절)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큰 일을 들은 다윗은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자신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간구합니다(18~29절).

하나님의 뜻은 다윗을 위해 집을 이루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다윗 가문의 번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부강을 뜻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입니까? 다윗의 나라는 다윗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뜻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그리스도의 나라에 있으며, 이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다윗을 택하시고 영원히 견고한 약속을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인간에게는 그 어떤 조건도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은 오히려 약속을 꺾방하는 쪽으로 행동할 뿐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고치시면서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질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기뻐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전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삼하 7:16)

Your house and your kingdom will endure forever before me ; your throne will be established forever.' "(2 Sam. 7:16)

사무엘하 7장
찬송가 294장

묵/상/노/트

• **장막과 성막(6절)** : 서로 대등 관계를 이루며, '내 거처가 되는 장막'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기도제목

①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 언제나 그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 땅을 갈아갈 수 있게 하소서. ② 김성관 위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정결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소서.

기도노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해가 바뀌고 새해 아침이 되어 신년감사예배를 드릴 때의 마음가짐은 낱고 더러워진 것은 벗어버리고 새롭고 깨끗한 것을 추구한다. 어제까지 일상과 다르지 않은 하루였지만 이제 작년이 되어버린 어제는 잊고 새로운 출발을 하고자 마음을 다잡는 아침이다. 오늘부터는 어제와는 다르리라 생각하면서, 새로운 것은 긍정적이고 의로운 것이며 밝은 것이 된다. 그래서 보이는 것, 먹는 것, 생각하는 것들이 마치 방금 새로 뜬 웅달샘 물처럼 깨끗하고 투명하다. 새해를 시작하면서부터 죄와 악한 것을 꼭 이루리라 마음속으로 다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번에도 나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진 채 신년감사예배에 참석하였다.

온 성도가 모인 짝 찬 예배당에는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것 같았다. 모두들 옛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될 것이라는 믿음과 기대로 각자의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어느 예배보다 신중한 행동과 말끔한 옷차림, 좀 더 정성스레 부르는 찬양들을 통해 새로운 것을 얻고 또 자신의 계획 속의 아름다운 신앙을 향해 나아가는 것 같았다. 나도 그들과 다르지 않았다. 처음에는 잘 그려지는 것 같다가 끝내 망쳐버렸다고 생각한 나머지 한 장을 과감히 넘겨버린 스케치북의 새 페이지처럼 시작부터 다시 하고 싶었다. 새로운 그림과 주제를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생각하고 싶었고 멋지게 그려내고 싶었다. 나도 올해가 저를 때에는 만족스러울 만한 그런 그림을 그려내고 싶었다.



그러나 새해 아침의 이런 바람들은 자극히 반복적이고 익숙한 일상에 물들어 있는 탓인지 눈에 띄만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지는 못하였다. 저녁이 되면서 그저 그런 날이 저물어가는 것처럼 또다시 무뎌지고 있었다. 덤덤한 마음으로 대학부 집회까지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문득 하늘을 보았다. 몇 안 되는 별이 심심한 검은 하늘 사이에 꽃혀 빛나고 있었다. 순간 나는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었다.

주님께서는 내가 정한 때와 장소에 의해 움직이거나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는 별처럼 언제나 변함없으시다는 것이었다. 낮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그 자리에서 빛을 내고 있는 저 별처럼,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나와 함께 계시며 내가 새해 아침 다짐했던 것처럼 나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이다. 신년감사예배를 마친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영원 속에 거하시며 변함없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새해를 핑계 삼아 나의 지나온 죄 된 과거를 합리화하려는 듯 새로운 것을 추구하며 변화되려는 나의 노력보다 먼저 예수님은 꺼지지도 않고 수천 년을 동일하게 빛나는 저 별들처럼 늘 변함없이 나에게 도전하시며 말씀하셨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어리석은 니고데모였다. 그러나 이제는 늘 내 삶을 주님께 드리고 자기를 부인하여 주님의 사역이 나를 통해 온전히 드러나기를 기도드린다.

박철호(대학부)

첫 번째 성찬식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꾸라

구원하는 믿음

너무 늦었다

마가복음 14:22~26

예레미야 32:36~42

시편 56:10~13

야고보서 2:14~26

요한계시록 22:10~13

매일 성경 매일 예수

읽으신 후 ☐에 체크하세요

15 주일

16 월요일

☐ 사무엘하 8장

17 화요일

☐ 사무엘하 9장

18 수요일

☐ 사무엘하 10장

19 목요일

☐ 사무엘하 11장

20 금요일

☐ 디모데전서 1장

21 토요일

☐ 디모데전서 2장

3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꾸라

Trade Your Fears For Faith

| 초점 |

십자가는 참 평안을 준다

| 찬송 |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찬송가 374장 나의 믿음 약할 때

| 본문 | 시편 56:10~13

(10)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11)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12)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13)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오늘 성경 본문의 기자인 다윗은 두려움으로 인해 심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적들에 의해 포위당했는데, 이는 지금 우리들의 상황과도 비슷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신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로 가야만 합니다. 천국으로 향하는 길은 온갖 종류의 치명적인 위험들과 끔찍한 고난들로 가득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여 항상 핍박합니다.

※ 한 주간, 복음 때문에 당한 환난과 핍박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두려움은 믿음의 원수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두려움은 우리의 삶에서 최고의 것들을 빼앗아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할 때 두려움 대신 믿음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두려울 때 무엇을 하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님을 믿음으로 대적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기 원하십니다.

시 56:1~2

여러분이 천국에 더 가까이 갈수록 대적들은 여러분을 죽이려고 할 것이며, 여러분의 친구들도 여러분을 멀하려고 할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의 가족도 여러분에게 점점 더 상처가 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유명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요 15:19

요 16:2~3

여러분의 가장 큰 대적은 누구입니까?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이 두렵습니까? 이 대적과 맞닥뜨릴 때마다 두려움 대신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은 그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그분을 믿으면 됩니다.

두려울 때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시 56:3 _____

믿음과 두려움은 정반대입니다. 믿음이 들어올 때 두려움은 물러갑니다. 믿음이 발휘될 때 두려움이 사라지며, 거룩한 승리가 옵니다. 또 믿음이 있을 때 용기가 생겨납니다. 예수님을 향해 소리치던 소경 거지는 무리의 지도자들로부터 조용히 있으라는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욱 크게 소리쳤습니다.

눅 18:38 _____

눅 18:41~43 _____

용기 있는 믿음은 강력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두려움과 싸울 이런 믿음을 어디에서 얻습니까? 로마서 10:17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흠뻑 젖을 때 믿음이 두려움을 몰아낼 것입니다.

두려울 때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시 56:10~11

하나님께 고정된 믿음은 인간의 두려움을 물러가게 합니다. 우리의 두려움 중 대부분은 사람들을 신뢰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남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 두려워합니다. 또 우리는 그 사람들의 동기와 의도를 불신합니다. 그러나 참 믿음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이자 구세주로 영접할 때 시작됩니다.

롬 5:1~2

근심할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창조주 주님이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시는데 말입니다. 예수님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요 14:26~27)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을 평안케 하사 두려움을 내어 쫓으십니다.

다윗은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뢰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물러가게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두려움을 다 합친 것보다도 더 크신 분이심을 확실히 발견한 것입니다. 어떤 근심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크건 작건 상관없이, 완전한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사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참 평안을 줍니다.

요일 4:18 _____

요 16:33 _____

| 믿음의 기도 |

- ①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가득한 삶이 되게 하소서.
- ② 매 순간 회개하며, 모든 초점을 그리스도께 맞추게 하소서.
- ③ 평안의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Handwriting practice lines consisting of 20 horizontal lines.



사무엘하 8장
찬송가 242장

목/상/노/트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블레셋은 사사 시대부터 다윗 시대에 이르기까지 대대로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였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공격하기보다는 방어적인 전쟁을 치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블레셋을 직접 공격할 뿐 아니라, 가드를 비롯한 네 성읍을 빼앗고, 소바까지 완전히 정복합니다(1~5절). 다윗은 첫 전쟁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모든 전쟁의 전리품을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11~12절). 다윗은 백성들을 공의로 다스렸습니다(15~18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6,14절)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듯이 다윗은 블레셋(1절)을 정복하고, 모압(2절), 소바(3~8절), 아람, 암몬, 아말렉, 에돔(9~14절) 등을 정복했습니다. 다윗이 정복한 이 나라들은 이스라엘보다 약한 국가들이 아니었습니다. 블레셋만 해도 이스라엘로서는 감히 대적할 수 없는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러한 강대국을 하나하나 격파하면서 계속 전진하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다윗과 같이 승승장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신 것은 세상의 축복이 아닙니다. 세상의 물질과 명예의 축복에 초점을 맞춘다면 성경이 약속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성취를 바라볼 수 없습니다(창 15:18). 다윗은 오실 메시아의 표상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하신 것처럼 나에게도 세상에서 승리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만 가득한 우리의 죄 된 본성을 회개하며, 우리를 용서하시려 갈보리 언덕을 오르신 예수님께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삼하 8:6)

He put garrisons in the Aramean kingdom of Damascus, and the Arameans became subject to him and brought tribute. The LORD gave David victory wherever he went. (2 Sam. 8:6)

• **사관(16절)** : 왕궁에서 중요한 지위였다. 이 지위는 왕정 시대까지 계속 유지되었으나 그 자세한 임무가 무엇인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아마도 나라 안의 중요한 사건과 업무를 기록하던 직책으로 보인다.

기도제목

① 날마다 승리의 하나님, 승승장구의 하나님만을 바라며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충현교회**에 주신 5대 목표가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짊어지도록 이루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기도노트

은총을 베푸리라

17

다윗 왕권이 안정기에 접어들게 되자 다윗은 요나단과 맺은 언약(삼상 20:42)을 기억했습니다. 다윗은 '은총'이라는 말을 3번이나(1,3,7절) 언급하면서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지키려고 합니다(1~3절). 마길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므비보셋을 영접했습니다. 그는 다윗이 압살롬의 공격을 피해 도망할 때에도 다윗에게 먹을 것을 제공했습니다(삼하 17장). 다윗은 신체적인 고통이 있는 므비보셋에게 사울의 땅을 돌려주며, 자신의 아들처럼 대우했습니다(7~13절).

다윗이 사울의 집에 남은 자를 찾는 것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은총을 베푸기 위함이었습니다(1절). 요나단은 다윗에게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신 때에도 너는 네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 버리지 말라”는 부탁을 했습니다(삼상 20:15). 그리고 다윗과 요나단은 여호와와 이름으로 맹세하였습니다(삼상 20:42). 다윗이 므비보셋을 찾는 것은 요나단과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이 므비보셋의 이야기는 놀라운 구속의 은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므비보셋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해 하나님의 아들로 높임을 받았으니 이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다리를 저는 므비보셋을 다윗의 상에서 함께 먹을 수 있도록 한 것처럼 아무 것도 아닌 우리에게 하나님은 독생자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선해서가 아니라 순전한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이 더 필요하단 말입니까? 우리에게는 날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고백만 있을 뿐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푸리라 하니라(삼하 9:1)

David asked, "Is there anyone still left of the house of Saul to whom I can show kindness for Jonathan's sake?" (2 Sam. 9:1)

사무엘하 9장
찬송가 438장

묵/상/노/트

• 로드빌(4절) : 요단강 동쪽 갈릴리 바다 남단 가까이에 위치한 드빌과 동일한 성읍으로 추정됨수(326)

기도제목

① 아무 것도 볼 것 없는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으로 죄 값을 지불해 주신 약속의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게 하소서. ② 신자가 보혈로 동성한 신령한 예배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기도노트

거부당한 은총

사무엘하 10장
찬송가 453장

목/상/노/트

암몬 왕 나하스의 사망 소식을 들은 다윗은 과거에 그에게 받았던 은총을 생각하며 암몬에게 조의를 표하고 하눈과의 관계를 점검하기 위해 사절단을 보냈습니다(1~2절). 하지만 하눈이 다윗을 모욕함으로 서로 적대적인 관계로 변했습니다. 암몬 왕 하눈은 어리석게도 방백들의 말을 듣고 다윗의 신하들에게 최대의 수치를 주었습니다. 그들은 신하들의 수염을 절반까지 잘랐고, 양쪽 엉덩이가 드러나게 했습니다(3~4절). 다윗은 자신의 신하들이 받은 수치와 모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하눈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보다 아랍의 용병을 고용하여 전쟁을 치루었지만 일차전에서는 요압에게, 이차전에서는 다윗에게 패배하여 이스라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15~19절).

이 장은 앞장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9장에서 다윗은 므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었고 므비보셋은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라는 말로 크게 감사했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으로 인하여 그 아들 므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었듯이 하눈의 아버지 나하스로 인해 하눈에게 은총을 베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2절). 그런데 므비보셋은 베풀어진 은총에 대해 감사하고 기뻐하는 반응을 보인데 반해, 하눈은 다윗의 은총에 대해 의심하고 다윗의 신하들을 조롱합니다. 다윗의 은총이 므비보셋에게는 감사와 기쁨으로 받아들여졌으나 하눈에게는 거부당한 것입니다. 하눈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끊임없이 강단에서 쏟아지는 십자가의 은총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풀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삼하 10:2)

David thought, "I will show kindness to Hanun son of Nahash, just as his father showed kindness to me." So David sent a delegation to express his sympathy to Hanun concerning his father. When David's men came to the land of the Ammonites, (2 Sam. 10:2)

• **마가복 6:3** : 갈릴리 호수와 요단강 서쪽의 동쪽에 있는 아람 왕국을 가리킨다 (신 34:1; 수 12:5)

기도제목

① 하나님은 강단을 통하여 끊임없이 십자가의 복음을 흘려보내 주시는데 나는 그 복음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는지 날마다 돌아보며 회개하게 하소서. ② 모든 교구와 부서, 각 위원회가 십자가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복음으로 부흥하게 하소서.

기도노트

다윗의 범죄와 나

19

다윗은 계속되는 암몬과의 전쟁에 자신은 출전하지 않고, 자신의 부하들만 내보냈습니다(1절). 예루살렘에 머무르던 다윗은 밋세바와 동침을 하게 됩니다(2~4절).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에 죄를 지었지만, 그 여인이 임신함으로 죄의 결과가 드러나 버렸습니다(5절). 다윗은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우리아를 불러 밋세바와 동침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아는 다윗의 호의를 거절하였습니다(6~13절). 다윗은 자신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자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우리아를 죽게 했습니다(14~21절). 다윗의 모든 죄가 완벽하게 가려진 듯 했지만 하나님의 눈까지 가릴 수는 없었습니다(22~27절).

성경이 다윗의 범죄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희는 다윗과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는 교훈을 주기 위함입니까? 이런 이유라면 우리는 다윗보다 낫다고 큰소리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적어도 다윗과 같은 죄는 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또한 다윗으로 하여금 밋세바와 동침하는 행위를 이끌어 낸 욕망은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죄에서 당당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예배를 드려도 감동을 받지 못하는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로 듣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인인 우리의 본질을 끊임없이 건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 죄 된 모습이 부인할 수 없는 자신의 본질임을 깨닫는 자만이 회개 자리로 나올 수 있습니다. 제발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 장례를 마치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삼하 11:27)

After the time of mourning was over, David had her brought to his house, and she became his wife and bore him a son. But the thing David had done displeased the LORD. (2 Sam. 11:27)

• **햇 사람 우리아(3절)** : 다윗 왕의 30인 시위대의 일원이었다. 그는 벼룩 햇 사람'이었으나 '나의 빛은 주님'이시라'는 이름의 뜻으로 보아 개종한 흔적이 보인다.

기도제목

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의 본질을 깨달으며 회개 자리로 나가게 하소서. ② 1년 1인 1명 전도하며, 교회 주변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게 하소서.

기도노트

20

디모데전서 1장
찬송가 205장

묵/상/노/트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디모데전후서는 디도서와 함께 묵회서신이라 불립니다. 디모데전서는 에베소를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마게도냐에 있던 바울이 자신의 선교 사역에 충실한 동역자였던 디모데의 묵회를 바라보며 조언함과 동시에 디모데 교회를 향하여 쓴 서신서입니다. 편지를 시작하면서 인사를 마친 바울은 자신이 디모데에게 명했던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위한 교훈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전에는 도무지 은혜 받을 만한 자가 되지 못하였으며 죄인 중에 괴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긍휼을 입은 자 된 것을 강조하면서 복음은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며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신 것이 복음을 강조합니다.

성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만이 진정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세상의 다른 헛된 지식이나 교훈은 결코 사람을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변론을 만들어 내며,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열심을 만들어 낼 뿐입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너무도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에 디모데를 향하여 다른 것을 가지고 묵회하려 하지 말고, 다른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자들을 경계하라고 권면합니다. 인간에게 복음이 들려지고 복음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인간은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달아 알게 되고,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이끄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로 인하여 감격이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 **경문(4절)** : '오이코노미아'(관리, 경영, 행정). 바울은 '가정을 관리하는 책임'과 그 임무를 수행하는 것, '하나님의 구원 계획' 등에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본절에서는 하나님의 교훈과 계획 등을 포괄적으로 의미한다.

• **변론(4절)** : 하나님의 경륜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잘못된 심문, 질문과 변론을 하는 것(에크제테시스)을 의미한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딤후 1:15)

Here is a trustworthy saying that deserves full acceptance: Christ Jesus came into the world to save sinners--of whom I am the worst.(1 Tim. 1:15)

기도제목

기도노트

①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신 것이 복음을 더 깊이 깨닫게 하소서. ② 예루살렘 찬양대와 오케스트라(눅 2:36)를 통하여 금요찬양집회가 십자가의 은총으로 풍성하게 하소서.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

21

디모데를 향하여 권면의 말을 시작하는 바울은 먼저 기도에 대해 가르칩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권면하면서 특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위하여 바울은 사도로, 전파하는 자로 세움을 입었음을 밝힙니다. 바울은 남녀 성도들이 특별히 주의하여야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에게는 분노와 다툼이 아니라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여자들은 외모에 있어서 단정할 것과 선행을 베푸는 일을 기뻐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여자는 순종함으로 배우고, 가르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무엇보다도 기도에 대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모든 사람에게 향하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맡은 디모데는 자신의 기도의 대상을 제한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첫 번째로 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 기도의 목적과 방향은 풍요로움과 쾌락을 위한 기도가 아니며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기도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며 끌어 안는 영혼의 구원을 위한 눈물의 기도여야 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가슴 밑 바닥에서 터져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딤후 2:4)
who wants all men to be saved and to come to a knowledge of the truth. (1 Tim. 2:4)

디모데전서 2장
찬송가 219장

묵/상/노/트

• **디고(1장)** : '엔톡시스'(대담, 면접, 청원, 기도) 기도를 뜻하는 '프로슈케'와 청원이 탄원의 의미가 담긴 기도이다. 신약성경 속에는 디모데전서에서만 21:45 사용되고 있다.

기도제목

① 내 감정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게 하여 주소서. ②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영적 긴장감이 필요한



우리 나라의 설날의 풍속은 신라 시대 이전부터 형성되었다. 고려 시대에는 설을 정월 대보름, 삼짇날, 팔공회, 한식, 단오, 추석, 중구, 동지와 함께 9대 명절로 삼고 지냈는데 그것이 조선 시대에 와서는 설날, 한식, 단오, 추석만을 4대 명절로 삼게 되었고, 현대에 와서는 다른 명절들은 유명무실해지고 오직 설날과 추석, 이 두 명절만 크게 지내고 있다. 설날을 다른 말로 '신일(慎日)'이라 하여, 이 날에는 바깥에 나가는 것을 삼가고 주로 집 안에서 지내며 한 해 동안 아무 탈 없이 잘 지낼 수 있게 해주기를 신에게 빌었다. 그래서 설날 아침 일찍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조상 신에게 제물을 드려 제사를 지내는 것이다. 이것이 빠진 설날은 아무 의미가 없기에 궁핍한 가정일지라도 이 날만큼은 제사를 정성껏 준비해서 지내고 있다.

이와 같이 설날의 초점은 철저하게 조상신을 섬기는 데 있다. 따라서 설날을 맞이하는 우리는 더욱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요일 5:19~21).

첫 번째 성찬식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꾸라

구원하는 믿음

너무 늦었다

마가복음 14:22~26

예레미야 32:36~42

시편 56:10~13

야고보서 2:14~26

요한계시록 22:10~13

매일 성경 매일 예수

읽으신 후 ☐에 체크하세요

22 주일

23 월요일

☐ 디모데전서 3장

24 화요일

☐ 디모데전서 4장

25 수요일

☐ 디모데전서 5장

26 목요일

☐ 디모데전서 6장

27 금요일

☐ 디모데후서 1장

28 토요일

☐ 디모데후서 2장

4

구원하는 믿음

Saving Faith

| 초점 |

십자가는 구원하는 믿음의 동력이다

| 찬송 |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 본문 | 야고보서 2:14~26

¹⁴“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¹⁵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¹⁶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담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¹⁷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¹⁸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 ¹⁹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 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²⁰아아 허탄한 사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²¹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²²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²³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²⁴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²⁵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²⁶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복음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율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떠나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 요한복음 3:16, 14:6, 에베소서 2:8~9, 갈라디아서 2:16 말씀이 공통으로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정리해 보십시오.

오늘의 본문에서 야고보는 선한 행위가 없는 믿음은 구원하는 믿음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이와 같은 그의 가르침은 오직 믿음을 강조하는 바울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야고보의 가르침을 면밀히 살펴본다면, 여러분은 이것이 바울의 가르침과 완전히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롬 10:9~10

바울은 단지 입으로 시인하는 말씀뿐만 아니라, 그 고백들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말이 마음에서 우러나온 진실한 고백이 아니라면, 구원하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한 신앙고백으로는 안 된다

단순한 신앙고백을 하는 믿음은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약 2:14 _____

구원의 확신이 없이 입술로만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은 진정한 신자가 아닙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는 마땅히 행위가 따른다는 야고보의 가르침에 동의합니다. 구원은 모든 사람들을 거둬나게 하여 새 것이 되게 합니다. 참된 믿음은 도덕에 무감각하게 되거나 행위가 없을 수 없습니다. 행위 없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은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고후 5:17 _____

야고보는 행위로 구원을 받음이 아니라, 선한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참된 믿음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는 바울의 가르침을 반박하거나 왜곡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약 1:6 / 오직 ☐☐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영적인 삶이 있어야 한다

영적인 삶이 없는 믿음은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약 2:17~18

행함 없는 믿음은 가치 없는 믿음이며, 죽은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은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사탄이 퍼뜨려 놓은 모조품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유치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돈, 명예 등 세상의 방식을 더욱 확실하게 믿게 합니다. 진짜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은 새로운 삶을 살게 합니다.

요 3:3,5

요 6:37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할 모든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오라고 모든 죄인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십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롬 10:12~13).

지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단순하게 지적으로 인정하는 믿음은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약 2:19 _____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첫 번째로 인정했습니다(막 5:7~8). 그런데 그 마귀가 구원받았습니까? 마귀와 그의 졸개들은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에 대한 그들의 고백이 그들을 구원하지는 못했습니다.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약 2:20 _____

오늘날 많은 교회의 교인들이 복음을 안다고 말하지만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다른 것들을 복음보다 더욱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복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복음을 앎을 수도 있습니다. 지적인 동의는 참 믿음이 아닙니다. 참 믿음에는 순종이 뒤따릅니다. 사실로부터 구원을 받기 위한 믿음으로까지 움직여야만 합니다.

갈 1:6~7 _____

약 2:21,25 _____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살아 있어야만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자신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둔다면, 여러분은 살아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살아 있는 믿음은 단순한 고백이 아닌,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죄인들의 반응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믿음입니다. 바울과 야고보는 믿음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오는 살아 있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생명력이 없는 믿음은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믿음과 행위는 서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여러분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구원하는 믿음의 원동력은 십자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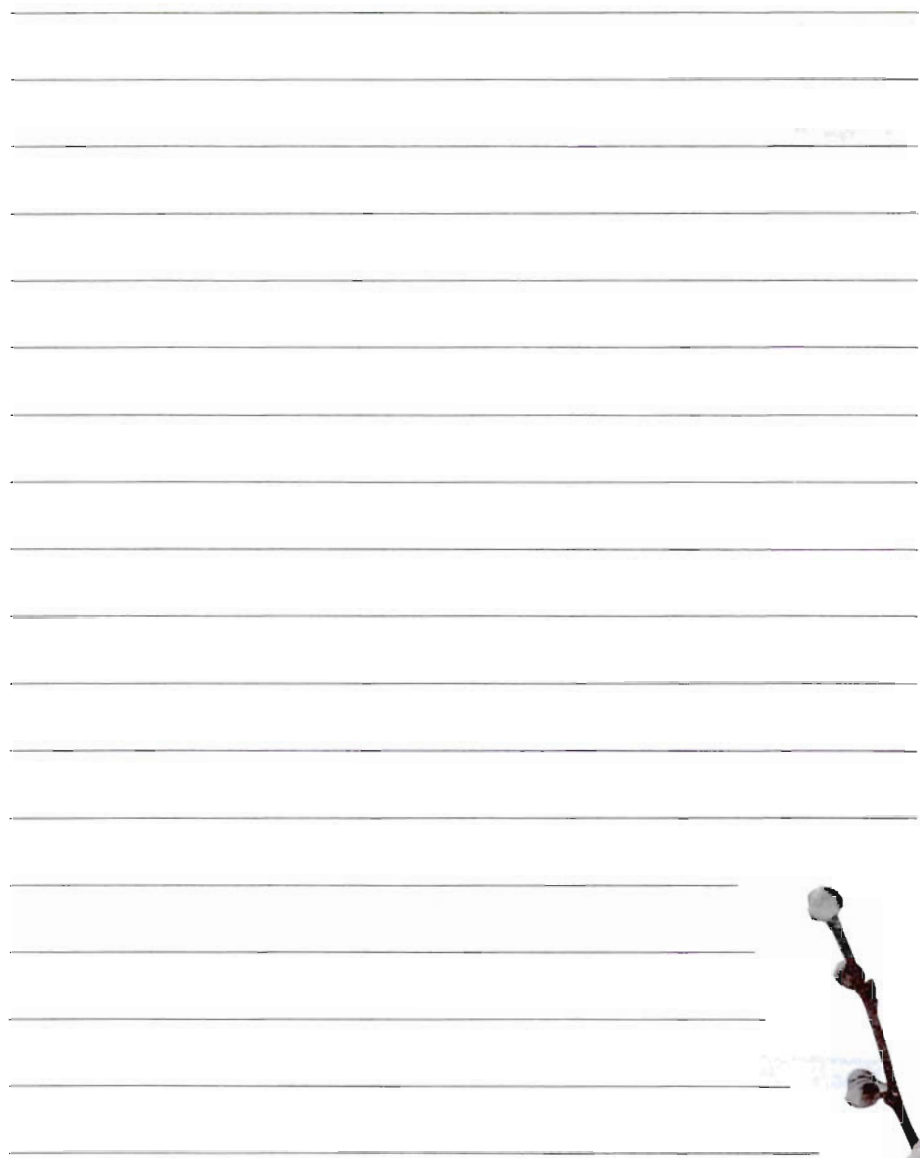
약 2:26 _____

고전 1:18 _____

| 믿음의 기도 |

- 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실천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 ② 믿음으로 자기를 부인하며,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게 하소서.
- ③ 충현의 모든 성도가 영적으로 부흥하게 하소서.





감독과 집사

디모데전서 3장

찬송가 87장

목/상/노/트

·경건(16절) : '유세베미아'는 고전 헬라어에서 신들에 대한 적절한 태도나 신을 섬기는 것 혹은 예배를 가리킨다. 이 표현은 신약성경 안에서는 15회 사용되며, 사도행전, 묵회서신, 베드로후서에만 나온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경건을 예수로 믿음이 라고 표현한다. 묵회서신에 써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 또는 그 방식을 말한다. 베드로후서에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으로 간주된다.

교회 안에 세워지는 직분에 대한 권면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원한다면 그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므로 교회 안에서 직분이 귀하다고 말합니다.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기 위한 자격에 대해서 바울은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에게도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정중하고, 일구이언하지 않고, 술에 인 박히지 않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여야 합니다. 그들의 아내들도 정숙하고, 모함하지 않고,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합니다. 이처럼 매우 구체적인 지침을 적은 바울은 자신이 이같은 권면의 내용을 편지로 적는 이유에 대해 그들의 만남이 지체될 경우에도 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 있기를 위함이라고 밝힙니다.

교회에서 일꾼으로 세워질 사람들은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들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윤리적인 타월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의 비밀이라고 표현된 이 말씀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고 하늘의 것을 따르는 삶을 추구하는 자들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경건의 비밀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경건한 삶이 되기를 바라며 회개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경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특정한 사람만이 아닌 모든 성도가 살아가야 할 마땅한 삶입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며,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딤후 3:16)

Beyond all question, the mystery of godliness is great: He appeared in a body, was vindicated by the Spirit, was seen by angels, was preached among the nations, was believed on in the world, was taken up in glory. (1 Tim. 3:16)

기도제목

① 경건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임을 더 깊이 깨닫게 하소서. ② 월요새벽기도회에 모든 성도가 참석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십자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소서.

기도노트

경건에 이르는 일

24

성령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교회 안에서 어떤 자들이 믿음을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라고 예언하시고, 경고하십니다. 그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육체적인 율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금혼과 음식물에 대한 금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기에 바울은 그러한 주장이 전혀 복음적이지 않으며, 틀렸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만약 디모데가 자신이 언급했던 내용을 통하여 그들을 세워 나간다면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세워질 것이라 말하면서 디모데에게 스스로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고 말합니다. 이 경건을 따르는 삶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 계신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디모데의 사명이 있다면 바로 이런 것들을 명령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인 지도자로서 그의 삶이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경건해지기 위하여 스스로를 훈련해야 합니다.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육체를 훈련하고 육체의 무엇을 이루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소망을 두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의 관심은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그 관심은 경건해지는 것입니다. 경건은 어떤 도덕적인 가치를 이루어 내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더 나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날마다 죽는 훈련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살아나는 내 자아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이는 것이 바로 경건에 이르는 일입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딤후 4:8)

For physical training is of some value, but godliness has value for all things, holding promise for both the present life and the life to come. (1 Tim. 4:8)

디모데전서 4장
찬송가 89장

목/상/노/트

· 연소행(12절) : '네오테스'는 '젊음'을 의미한다. 신약성경에서는 4번 정도 사용되며, 모두 소년 또는 청년기를 나타낸다. 나이가 어린 것이 지도자로서 엄신여감을 담할 수 있는 요소였다.

기도제목

① 오늘도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경건의 삶을 살게 하소서. ② 총현교회의 재단들(유지, 동산, 복자)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현재 진행 중인 양로원 및 함양총현동원 개발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25

성도의 관계

디모데전서 5장
찬송가 220장

목/상/노/트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대하여 권면합니다. 늙은이에게는 아버지에게 하듯 하고,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젊은 여자에게는 자매에게 하듯 하라고 합니다. 또한 과부들에 대해서는 참 과부를 존대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섬길만한 가족이 없고, 향락을 좋아하지 않고 오직 외로운 자로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는 자입니다. 이러한 과부들은 교회가 돕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존경하라고 말합니다. 범죄한 사람들을 꾸짖을 때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귀감이 되도록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편견이나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는 윤리나 사회적인 통념을 따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자들로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는 교회를 통하여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한 형제자매가 된 것을 잊지 말고 그들을 항상 진실함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된 놀라운 비밀을 소유한 사람, 곧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체험한 사람들은 교회가 한 몸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이는 결코 우리에게 도덕이나 윤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도의 교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 **효(4절)** : '유세베이아'는 경건을 뜻한다. 경건의 본래적 의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예배하는 것이라고 할 때 이는 단순히 유교적인 효도를 말하는 개념이 아니라 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라는 의미로 이해된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삶의 모습인 것이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딤후 5:1)

Do not rebuke an older man harshly, but exhort him as if he were your father. Treat younger men as brothers, (1 Tim. 5:1)

기도제목

① 인간의 교제가 아닌 성도의 교제를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② 총천교회가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든든히 세워지고,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기도노후

믿음의 선한 싸움

26

성도의 삶과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신분과 지위에 대해서 말합니다. 종들에 대하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상전을 더 잘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삶이 철저하게 복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전을 따르지 않는 가르침을 따르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또한 돈을 사랑하고 부하려고 하는 것이 믿음을 떠나게 하는 큰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마지막으로 디모데를 향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명령합니다. 이 싸움을 통하여 영생을 취하라고 말합니다. 이 명령은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행하는 매우 엄한 명령으로서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지키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이 땅의 것을 좇아가며,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땅의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특히 돈에 대하여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데, 주님이 허락하신 하루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다면 족한 줄 알고 감사하면서 살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있다면 그는 그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도 돈을 따라가면서 근심하고 시험에 빠지고 올무에 걸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딤후 6:12)

Fight the good fight of the faith. Take hold of the eternal life to which you were called when you made your good confession in the presence of many witnesses. (1 Tim. 6:12)

디모데전서 6장
찬송가 496장

묵/상/노/트

• 자족(6절) : '아우타르케이'라는 상당한 재산이나 충분한 양을 뜻한다. 신약성경 속에서는 두 번 사용되고 있는데, 고후 9:8에서는 '충분한 양'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여기에서는 '충분하게' 여기는 마음을 의미한다.

기도제목

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소서. ② 김성관 위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붙들여 주시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정결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소서.

기도노트

27

복음과 고난

디모데후서 1장
찬송가 505장

묵/상/노/트

디모데전서는 AD 62년경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잠시 풀려나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기록한 것이며, 디모데후서는 AD 66~67년경 네로 황제의 치하에서 다시 체포되어 감옥에서 순교 당하기 직전에 쓴 서신입니다. 그는 자신의 고난을 설명함으로써 자신이 순교 당하더라도 디모데가 흔들리지 않고 목회 사역에 전념하기를 촉구하기 위하여 편지를 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언급하면서 디모데를 아들이라 부르며 인사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거짓 없는 신실한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하여 받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복음을 주신 이가 그를 끝까지 지킬 것임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끝까지 지키라고 말합니다(12절).

우리는 바울이 복음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붙잡았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믿고 있는 바울도 보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고난이 임했을 때 그 고난을 부끄러워하면서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 또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말씀 앞에서 어디에서 있습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은총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 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딤후 1:12)

That is why I am suffering as I am. Yet I am not ashamed, because I know whom I have believed, and am convinced that he is able to guard what I have entrusted to him for that day. (2 Tim. 1:12)

• 절제하는(7절) : '신중한'과 유사한 뜻이다. 본래 이 용어는 고대에 도덕적 교훈, 좋은 판단, 자아통제, 충고, 개선, 분별력, 신중을 의미했다. 신약성경에서 여기에만 사용되었다.

기도제목

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삶이 되게 하소서. ② 모든 교구와 부서, 각 위원회가 십자가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복음으로 부흥하게 하소서.

기도노트

십자가의 병사

28

디모데가 감당해야 하는 영적인 사역을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하여지며 복음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모습을 세 가지 다른 모습으로 비유하여 설명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병사와 같이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고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여야 합니다. 경기하는 자처럼 고난을 당하더라도 어려움을 견디며 하나님의 법대로 경기하여 끝까지 승리자의 관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견디어냈을 때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왕 노릇을 할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도들이 말다툼하지 않도록 가르치고, 스스로를 하나님에게 드리며,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고 구체적으로 권면합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을 주의하고,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는 헛된 말을 버려야 합니다. 헛된 말은 악성 종양처럼 퍼져나가 우리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17절). 본장의 말씀은 단순히 사역자 디모데에게만 전해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는 모든 성도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자기가 살아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삶은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한 삶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병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철저히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병사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딤후 2:3)

Endure hardship with us like a good soldier of Christ Jesus. (2 Tim. 2:3)

디모데후서 2장

찬송가 349장

목/상/노/트

• 부인할 수 없으리라(13절) : '아르네오마이' (부인), 요구 혹은 도전의 문맥에서 부인은 '분명히 거부하다, 거절하다, 사절하다'란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주님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신다'는 표현은 약속을 어기지 않으신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기도제목

①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로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하소서. ② 총현교회에 주신 5대 목표가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짊어지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기도노트

미련한 전도의 방법으로

작년에 선교를 통해 많은 순수한 영혼들을 만나며, 선교의 소명을 분명히 보여주셨다. 복음의 씨앗이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과 함께 성경책도 교회도 없는 열악한 환경을 안타까워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기도하였다. 교회를 짓거나 현지 사역자를 양육하는 일은 내가 하기에는 어려운 일이어서 가장 믿을 수 있고 확실한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정하였다. 뿌린 복음의 씨앗이 자라고 열매 맺기를 기도하며 처음으로 매월 선교헌금을 드리기로 작정하게 하셨다. 올해도 캄보디아 선교를 준비하며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설렘과 이번에는 어떤 비밀들을 보여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선교 갈 여건은 되지 않았지만 일단 시작하였다.

출발하기 일주일 전에 직장의 휴가가 승인되었고 3개월 동안 계속되던 감기가 모두 나았다. 또한 반대하던 남편이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 파송을 해 주었다. 준비하며 힘들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온 몸으로 느끼며 얼마나 감사하였는지...

믿음으로 출발하여 도착한 선교지에는 역시 사탄의 방해가 있었다. 첫날밤을 자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선교지에서 밤새도록 쫓기는 꿈으로 인해 아무 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무력감이 몰려왔다.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 상태 이대로도 주님 사용하실 거죠?"

다음을 만나



주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기도했다. 다음엔 경건회와 평가회 인도하는 방식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 인도하는 사람이 너무나 미워지며, ‘다음엔 같이 안 와야지’ 하는 마음까지 들었다. “주님, 제가 왜 이러죠? 어떻게 온 선교인데 선교지에 와서 한 마음이 되어야 할 팀원을 이렇게 미워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제 힘으로는 안 돼요.” 복음을 전할 때는 주님 주신 평안함으로 잘 전할 수 있었는데, 경건회와 평가회 모임 때는 또 미워하는 마음이 들었다.

3일째 되는 날, 미워하는 팀원에 대해 주님께 말기는 마음을 주시며, “은혜가 되시는 대로 인도하세요”라고 말하게 하셨다. 그 다음부터는 인도하는 방식이 바뀌지 않았는데도 한 마음이 되어 회개와 감사가 있게 하시며 오직 복음 전하는 데에만 집중하게 하셨다. 사탄의 방해였음을 깨닫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셔서 사역이 끝날 때까지 날씨, 음식, 사역 방해자 등 아무런 어려움 없이 오직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한 사람에게라도 더 전하려는 열심을 모든 팀원들에게 주셨다. 참으로 구원은 한 개인 개인의 일이며, 미려한 전도의 방법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을 깨닫는 시간이었다. 이 비밀을 정확히 알고 실천하는 교회와 이 교회를 사용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다음 선교 사역을 기대한다.

권정옥(집사, 22교구)

첫 번째 성찬식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꾸라

구원하는 믿음

너무 늦었다

마가복음 14:22~26

예레미야 32:36~42

시편 56:10~13

야고보서 2:14~26

요한계시록 22:10~13

매일 성경, 매일 예수

읽으신 후 ☐에 체크하세요

29 주일

30 월요일

☐ 디모데후서 3장

31 화요일

☐ 디모데후서 4장

1 수요일

☐ 사무엘하 12장

2 목요일

☐ 사무엘하 13장

3 금요일

☐ 사무엘하 14장

4 토요일

☐ 사무엘하 15장

5

너무 늦었다

Too Late

| 초점 |

십자가는 예수님께로 인도한다

| 찬송 |

찬송가 330장 어둔 밤 쉬 되리니

찬송가 447장 이 세상 끝날까지

| 본문 | 요한계시록 22:10~13

(10)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11)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12)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13)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천사는 시도 요한에게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계 22:10)라고 말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예언은 비밀로 여겨질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이들이 계시록의 말씀하시는 바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니엘서의 예언과는 같지 않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단 12:4). 분명히 계시록의 인봉되지 않은 말씀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니엘도 알 수 없었던 주님의 상세한 구원계획이 확연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이 인봉되지 않은 예언은 정확히 지금 이때를 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언이 성취되는 흥분되는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곧 다시 오시며, 계시록의 예언대로 지금은 우리 모두가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 지금 이때에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나누어 보십시오.

계 22:7,12,20

예수님이 곧 오시기에 지금은 아주 심각한 시기입니다.

살전 4:16~17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재림하실 때 돌이키면 늦는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는 구원받기에는 너무 늦을 것입니다.

계 22:11 _____

이 세상에는 공정한 자도, 의로운 자도 없습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전 7:20).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합니다 (롬 3:23). 우리는 모두 더럽고 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의 보혈로 덮이지 않은 사람은 누구도 소망이 없습니다. 그라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지 않았던 죄인들이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사 64:6 _____

요일 1:7 _____

빛 가운데 행함이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지금 당장 고백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봉하지 않으신 말씀을 너무 늦기 전에 모두가 읽어야 합니다.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을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사탄도 늦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는 사탄에게도 너무 늦을 것입니다.

계 22:11 /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_____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신자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지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곧 이 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롬 3:24,26).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의로워집니다.

고후 5:21 _____

벧전 2:9 _____

골 1:22 _____

지금, 사탄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내려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약점들을 공략하며, 우리가 가는 길에 방책들을 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실 때, 사탄에게는 너무 늦을 것입니다(계 20:10). 그리스도의 재림은 모든 시험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은 영원히 원수의 손길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봉사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는 봉사를 하기에는 너무 늦을 것입니다.

계 22:12

예수님은 신실한 사람들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여러분이 상을 받을 기회는 더 이상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이웃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할 시간이 더 이상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성령님은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여러분을 이끌지 않으실 것입니다.

시 62:12

마 16:27

여러분은 어떤 상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떤 봉사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바쁜 것은 세상 재물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상급 때문입니까?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봉사에 대한 상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그때, 여러분에게 상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지금이 봉사할 때입니다.

※ 지금 내가 섬겨야 할 자리는 어디인지 나누어 보십시오.

너무 늦기 전에 그리스도께로 나아와 구원받으십시오. 너무 늦기 전에 지금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 그분을 섬기십시오. 너무 늦기 전에 가족, 친구들, 이웃들과 직장 동료들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경고하십시오. 너무 늦기 전에 여러분의 삶을 영혼을 구하는 데 드리십시오. 너무 늦기 전에 영원하신 주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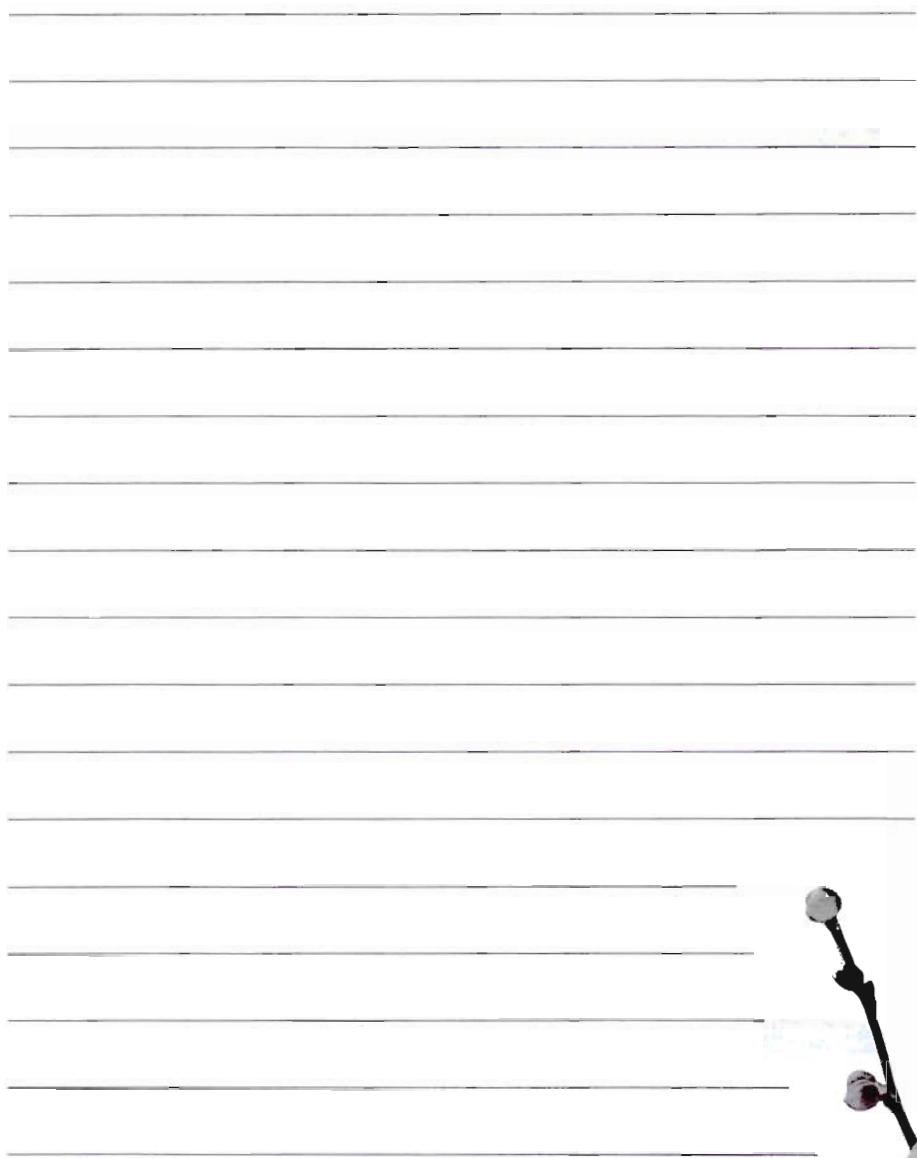
요일 2:18 _____

계 22:13 _____

| 믿음의 기도 |

- ①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 ②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소서.
- ③ 자기를 부인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30

마지막 때

디모데후서 3장
찬송가 400장

목/상/노/트

말세의 때, 곧 고통하는 때를 말합니다. 그때에 사람들은 철저히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실제적인 능력은 부인하는, 곧 거짓 성도의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진실한 신앙이 어떤 것인지, 진실한 성도란 무엇인지를 말해 줍니다. 바울이 실제로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었듯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 고자함을 통하여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바울은 끝까지 디모데에게 고난을 받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모습인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고통 가운데서 끝까지 붙잡고 따라야 할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성경이 참 지혜를 우리에게 주며, 그 지혜는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임을 말합니다.

성도는 시대를 분별하면서 세상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그 시대 안에서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있으면서 실제로 십자가 앞, 즉 고난 앞에서 고개를 돌리고 마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은 아닙니까? 말씀을 통하여 선포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참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이 땅에서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외면하는 어리석은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의해(10절) : '프로데시스'는 '치러놓음, 결심, 의도'를 뜻한다. 음식이나 재물 등을 치러 놓음, 의도, 결심을 의미한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딤후 3:15)

and how from infancy you have known the holy Scriptures, which are able to make you wise for salvation through faith in Christ Jesus.(2 Tim. 3:15)

기도제목

- ① 오늘도 구원의 길을 걷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 ② 십자가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기도노트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으니

유언과도 같은 말을 디모데에게 전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지 않고 자기 사욕을 따를 것이지만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직무를 다 하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이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자신의 죽음의 시간이 다가왔음을 말하면서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자신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는 의의 면류관을 사모하면서 모든 성도에게 주어질 면류관을 디모데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의 믿음의 권면을 마친 바울은 개인적인 부탁을 하면서 편지를 마칩니다.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보다 자신의 사욕을 따르는 것을 좋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에게는 마땅히 고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스승으로 삼고, 그분을 전하는 일에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분의 명령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여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 드려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마지막 때에 전제와 같이 사용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완전히 내어놓는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면류관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어질 것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딤후 4:8)

Now there is in store for me the crown of righteousness, which the Lord, the righteous Judge, will award to me on that day--and not only to me, but also to all who have longed for his appearing.(2 Tim. 4:8)

디모데후서 4장
찬송가 150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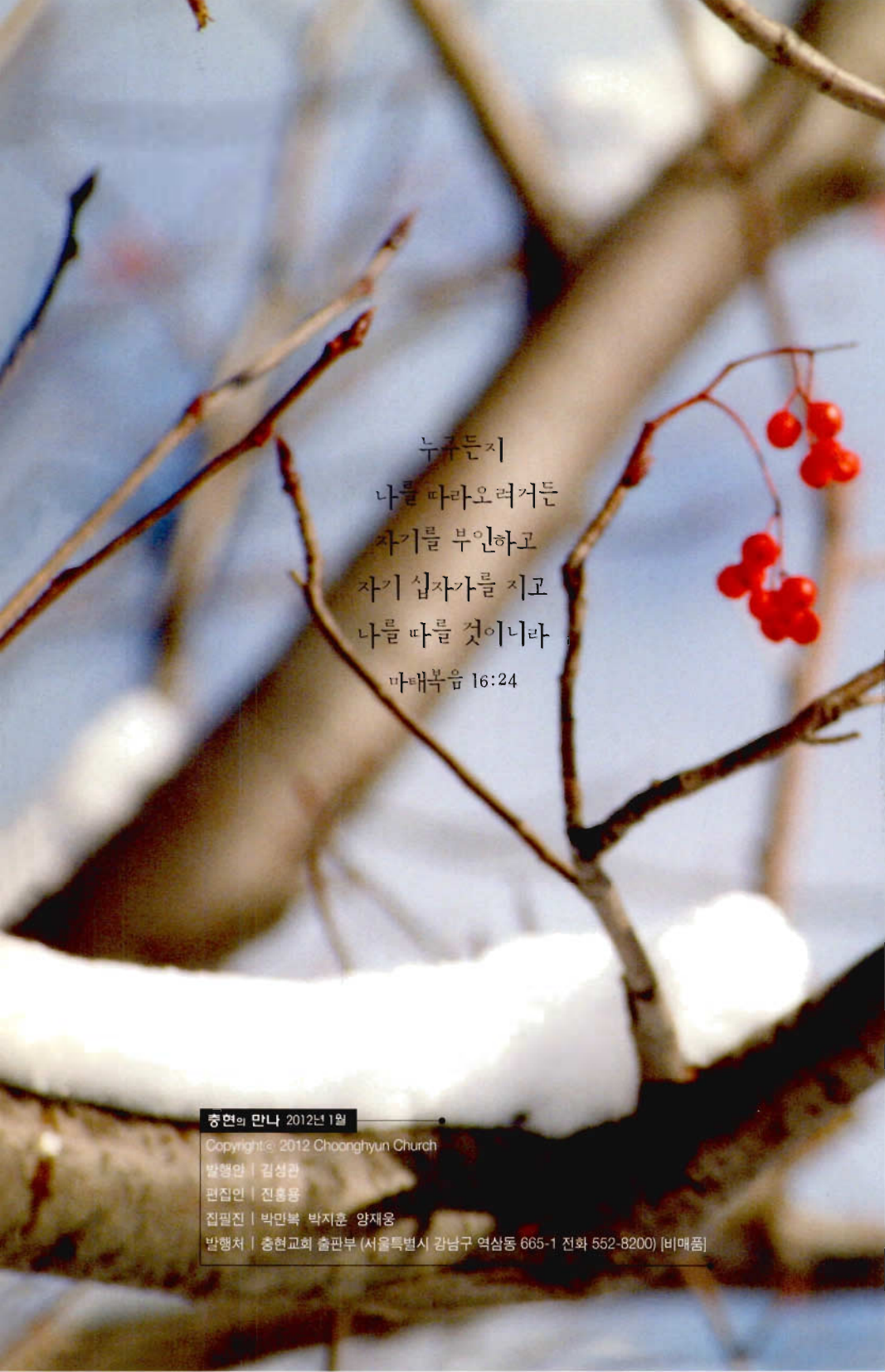
목/상/노/트

• 허탄한 이야기(4절) : '위토스'(신화와 이야기), 신약성경에서 5회 나오며, 사도 바울은 항상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였다. 딤후 1:4에서는 신화로, 딤후 4:7에서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고 지칭된다. 딤후 1:4에서도 허탄한 이야기로 번역되었으며, 마지막으로 베후 1:16에서는 공교히 만든 이야기로 번역되었다.

기도제목

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게 하소서. ② 1년 1인 1명 전도하며, 교회 주변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게 하소서.

기도노트

A close-up photograph of a winter branch. The branch is dark brown and has several small, red, round berries hanging from it. The background is a soft, out-of-focus blue and white, suggesting a snowy or icy environment. The lighting is soft, creating a gentle, wintry atmosphere.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중현의 만나 2012년 1월

Copyright © 2012 Choonghyun Church

발행인 | 김성관

편집인 | 진홍용

집필진 | 박만복 박지훈 양재웅

발행처 | 중현교회 출판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비매품]